

정치인이 절반... 10명중 3명 전과·10억 이상 재산가 38명

광주·전남 후보자 95명 분석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4·13 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후보 가운데 2명 중 1명 정도가 기성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 10명중 3명 이상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후보 95명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38명이었고, 15명은 군 미필자였다.

■ 정당별 후보등록 현황

구분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계
광주	7	8	8	4	1	8	7	43
전남	10	10	10	3	2	7	10	52
합계	17	18	18	7	3	15	17	95

■ 연령별 등록 현황

구분	70대이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계
광주	0	12	12	14	2	3	43
전남	4	12	24	7	5	0	52
합계	4	24	36	21	7	3	95

광주 32%·전남 40%...5건도 2명 집회·시위 법률 위반자 가장 많아

■ 전과

광주지역 후보 43명 중 32.6%인 14명이 전과가 있었고, 전남은 후보 52명 중 40.4%인 2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집회·시위 관련 전과였다.

광주에서는 민중연합당 고기담(서구을) 후보가 5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후보가 4건, 무소속 한남숙(광산을) 후보가 4건으로 많았다.

고 후보는 2002년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됐다. 다른 전과도 집회·시위 중 발생한 것이었다.

한 후보는 경매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등 벌금형 전력이 4차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인 국민의당 최경환(북구을) 후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건 있다.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의당 나경채(광산갑)·장화동(서구갑) 후보, 민중연합당 윤민호(북구을)·황인용(동남을) 후보 등 진보 진영 후보들도 집회 과정에서 생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의 후보들 전과는 음주운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 벌금형 처분 경력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화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민주 신정훈 의원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등 5건의 전과가 있었다. 신 의원은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분류된다.

그는 나주시장 재임 시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낙마했다가 사면을 받아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출마하는 민중연합당 위두환 후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등 집회·시위 관련 전과 5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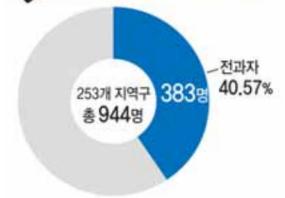
목포의 민중연합당 김환석 후보(4건), 순천 무소속 박상욱 후보(3건) 등 진보 성향 인사들도 집회·시위 관련 전과가 있었다.

현역 의원 도전자 가운데는 국민의당 박지원(목포) 의원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인정돼 200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2월 잔형면제 사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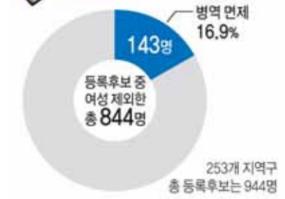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명옥재(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사기 등 2건, 같은당 김종우(나주·화순) 후보는 명예훼손 전과가 있다. 후보 3명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다.

4·13 총선 등록후보 전과 현황



4·13 총선 등록후보 병역 현황



변호사 출신 8명...50대 36명 최다, 60대도 24명

■ 직업·연령

광주 후보 43명 중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20명(46.5%)이 정치인이었다. 변호사와 교육자가 3명씩, 회사원 2명, 종교인·의사·출판업이 각 1명, 기타 12명이다.

전남은 전체 52명 중 정확히 절반인 26명이 정치인이다. 새누리당 2명, 더민주 5명, 국민의당 3명 등 모두 10명(비례대표 2명 포함)의 현역 의원이 출마해 선거구(10개) 당 평균 1명씩이다.

여수갑남 현역의원 출마자가 없고 고

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국민의당 황주홍(지역구) 의원과 더민주 신문식(비례대표) 의원이 격돌하게 했다.

변호사 5명, 교육자 3명, 농축산업 2명, 건설업·의사·회사원·무직 1명, 기타 12명이다.

연령별로는 광주가 40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와 60대 각각 12명, 30대 2명, 20대 3명이었다. 남성이 33명, 여성이 10명이다.

동남을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황인용 후보가 26세로 최연소였고, 무소속 강운

태(동남갑)·새누리당 정운(광산갑) 후보

가 67세로 최고령이다.

전남에서는 절반 가까운 24명이 50대였으며 60대 12명, 40대 7명, 30대 5명, 70대 4명이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의 무소속 김전식 후보는 74세로 서울 서초갑 국민의당 이한준 후보와 함께 전국 최고령이다. 여수를 정의당 황필환 후보는 34세로 전남에서 가장 어렸다.

광주 33명중 5명, 전남 51명중 10명 '軍 미필자'

■ 병역

광주에서는 남성 후보 33명 중 5명이 군 미필자로 집계됐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는 더민주 송갑석(서구갑) 후보, 국민의당 최경환(북구을) 후보, 민중연합당의 고기담(서구을) 후보, 무소속 강운태(동남갑), 무소속 김하중(서구을) 후보이다.

송갑석·최경환 후보는 시국사건 연루 등으로 수감돼 군대를 면제받은 이른바 수형으로 소집면제됐다.

고기담 후보는 제2국민역(좌측측모지

제1관절부절단) 판정을 받았고, 김하중 후보는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육종출마한 강운태 후보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됐다.

전남지역에서는 남성 후보 51명 중 10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군 미필 후보는 새누리당 조성학(담양·함평·영광·장성), 더민주 송대수(여수갑), 더민주 백무현(여수을), 더민주 신정훈(나주·화순), 국민의당 구희승(순천), 국민의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후보이다.

또 민중연합당 정오균(순천), 민중연

합당 박광순(영암·무안·신안), 무소속 송태화(목포시), 무소속 장대범(광양·곡성·구례)후보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송대수·윤영일 후보는 근시로 제2국민역 판정을, 구희승·조성학 후보는 질병으로 소집 면제되거나 입영 후 귀국했다. 송태화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됐으며, 장대범 후보는 생계 곤란을 병역 면제 사유로 신고했다. 신정훈 후보는 시국사건 관련 복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정오균·박광순 후보는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장병완 82억 1위...15명 억대 납세, 체납자 없어

■ 재산·납세

광주·전남지역 총선 후보 중 최고 재력가는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국민의당 장병완 후보로 82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가 70억4700만원을 신고했다.

장 후보는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 47억원대 예금과 10억원의 채무를 함께 신고했다. 강원도 고성군의 금강산어넌티골프회원권(1700만원)도 보유했다.

주 후보는 37억원 상당의 토지와 염전, 26억원대의 상가와 아파트를 신고했다.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 후보도 35억원 상당의 건물과 15억원대 토지, 12억원대 채무 등 모두 45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아예 없거나 마이너스인 후보

도 3명이나 됐다.

삼성전자 상무출신으로 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는 33억 8000만원을 신고, 만만치 않은 재력을 입증했다. 16억원 상당의 예금과 7억원대의 삼성전자 주식 등을 보유했다.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전정배 후보(8억5000만원)를 제외한 4명의 재산이 10억원대를 넘었다.

전남에서는 입후보자 52명 중 19명(36.5%)이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20억원대 이상 재력가도 7명으로 집계됐다.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진 유선호(무소속) 후보가 31억4000만원을 신고했고,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한 황주홍(국민의당) 후보가 25억5600

만원의 건물과 15억원대 토지, 12억원대 채무 등 모두 45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아예 없거나 마이너스인 후보

4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광양·곡성·구례에 출마한 우윤근(더민주)후보도 21억7000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한편, 광주지역 출마자 가운데 일부 후보의 일시 체납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성실하게 납세했다.

억대 세금 납부자는 6명이었다. 최고액 납세 후보는 삼성전자 상무출신으로 서구에 나선 더민주 양향자 후보로 지난 5년간 소득세 2억9705만원, 재산세 243만원 등 모두 2억9948만원을 냈다.

납세액 2위는 광산갑의 민주당 정영호 후보로 2억9799만원을 납세했다.

북구갑에 나선 국민의당 김경진 후보도 모두 2억7194만원을 납부, 3위에 올랐다.

전남 지역 후보자들 가운데 억대 납세자는 9명이고, 현재 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Climate Change Academy

GIST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16. 3. 31.까지

기간 : 2016. 4. 6. ~ 6. 30. 시간 : 매주 수요일 19:00~21:50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오픈관 1층 103호

지원자격

- 정부, 국회, 사법부 고위 관리자
- 공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 학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영자
- 전문직 및 직능별 대표자
-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모집인원

- 20~30명 내외

등록금

- 1차 등록금(200만원)
- 2차 등록금(현장학습비) : 별도안내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

- 교육기간 : 12주(2016. 4. 6. 개강)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9:00~21:50
- 유료연수 : 12주차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모집(~ 2016. 3. 31.)
- 원서교부 : 신청자에게 우편송부 또는 인터넷 교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E-mail 접수
- 접수처 : GIST 기후변화 아카데미 사무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다산빌딩(C9) 426호(담당자 : 강난영)

제출서류

- 수강지원서(소정양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국내외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과 유럽 현지 교육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21세기 전문가 양성 및 핵심역량 제공

주최 :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원(IIT) 후원 :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원(IIT), 국제환경연구소(IERC)

GIST 기후변화아카데미
GIST Climate Change Academy

문의 : GIST 기후변화 아카데미 사무국
Tel. 062)715-5308 · E-mail. gcc@gist.ac.kr